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통해 알아본 불교계 장애인 취업 실태

개개인 능력 발굴·업종 다양화 필요

“어려워도 한 번 해볼래요. 시도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10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7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여기서 만난 박현우(38·가방)씨는 하지장애5급으로 현재 실직 상태다. 한 쪽 다리 길이가 조금 짧지만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이전 회사에서는 경리 일을 했습니다.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압니다. 오늘을 기회삼아 적극적으로 구직해 볼 생각입니다.”

박씨처럼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꽤 많았는지 박람회장은 하루 종일 북적였다. 330여개의 업체가 참여한 박람회 슬로건이 눈에 띄었다.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 만들기 실현되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전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있다. 이외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장애인취업박람회에도 참여한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 02-989-4215)에서는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기술을 물론 정보화교육까지, 2년에 걸친 취업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을 알선한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들을 구인업체에 맞춰 취직을 시키기 보다는 장애인들의 사정과 능력에 맞는 업체를 발굴해서 취업 알선한다는 점이다. 복지관 내에서도 서버리스 도우미, 공공근로 등을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맡기고 임금을 지급한다. 권유헌 직업재활팀장은 “취업지원센터와 직무분석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유독 눈에 띄던 장애인취업박람회. 불교계도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시설 외 사찰·단체 지원 미비

통해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고 말했다.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다래, 031-396-3108)은 ‘보호자업장’ 운영이 인상적이다. USB 완제품 생산라인을 갖춘 이 작업장은 발달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 노동자 36명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정교한 작업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다. 또 외주 인가공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주문을 받아 중간조립품 생산을 하거나 비즈·압화 공예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한다. 공예품이나 액세서리는 내부 또는 경기 도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군포장애인복지관은 2006년까지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자활기금사업 우수 집행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현각, 033-643-1801)에서는 ‘해오름식품’을 운영, 장애인 취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해오름식품’은 보호자업장에서 출발해 현재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다. 현재 감자떡과 제빵·제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 업체에는 지체장애인 14명, 지적장애인 7명이 고용돼 있다. 이들은 현재 일반사업으로 판로를 개척, 수익을 내고 있다.

불교계 복지기관들에서 장애인취업지원과 고용에 힘쓰고 있는 있지만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하나는 오직 장애인시설에서만 장애인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시설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해당하는 시설이 생길 경우 반드시 정책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불교계 장애인취업지원이 거의 보호자업장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종이 단순하다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보호자업장 대부분이 단순 노동라던, 장애인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 발굴할 수 있는 직종은 전문직·사무직 등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불교계가 장애인복지 자체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스님은 “교계 복지시설이 노인과 아동 시설 등에만 편중됐고 스님들은 장애인복지에 골치 아프다며 기피한다”고 비판했다.

11년간 장애인복지에 매진하고 있는 강릉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지명 스님은 “불교계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장애인 취업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끌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봉사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

③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신회-유인섭 팀장

눈빛이 형형한 사람은 만인(萬人) 속에 묻혀있어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의지가 그 눈 속에 서려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단 수신회의 유인섭(67) 팀장이 바로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다. 만 65세가 넘었으니 법적으로 ‘노인’이다. 하지만 봉사단 내에서 그는 ‘만년 청년’으로 통한다. 봉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분야가 목욕·발반사마사지. 유 팀장은 놀랍게도 그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 목욕봉사는 국립재활병원, 발반사마사지봉사는 마포노인복지관에서 각각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다. 국립재활병원 목욕봉사팀 수신회에서는 팀장까지 맡고 있다.

“처음 봉사하겠다고 나섰을 때, 친구들이 다들 말리더라고요. ‘아, 네가 원찮는데 무슨 봉사냐’면서요.”

요즘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봉사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쁘다. 유 팀장은 처음 국립재활병원에 나가 목욕봉사에 참여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많이 혼나면서 배웠어요. 거기 환자분들은 온몸이 마비돼서 정말 조심해서 서비스해드려야 해요. 때를 미는 방법부터 다시 배웠지요.”

유 팀장이 봉사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은 5년 정도 됐다. 아내의 권유로 조계사 불교대학 ‘44학번(불기2544년 학번)’으로 입학한 것이 계기였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더욱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제안에 의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유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전문사회복지’, ‘고객감동’, ‘삶에 희망과 용기를’이란 비전을 안고 지역 주민을 위해 발돋움할 예정이다. (051)628-6737-9



점을 운영해오고 있는 그는 “바쁘게 살았다”고 지난날을 상기했다. 유 팀장은 포목점을 하기 전, 30대 중반까지는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섬유노조가 한창 생길 무렵이었고 그는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노조활동 때문에 직장이 폐쇄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는 쓰린 마음을 다 잡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글은 “아, 네가 원찮는데 무슨 봉사냐”면서요.”

이런 이야기는 유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한 번 하는 일,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는 국립재활병원 추천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상까지 수상했다.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5년 동안 달려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힘에 부칠 때도 있다”고 고백한다.

“집에서는 힘들다는 말 못해요. 체중이 줄어 아내가 근심이 많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라 우기고 있어요.”

허허 웃으며 “일흔까지 계속하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유 팀장이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고민은 ‘봉사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다. “목욕이나 발반사 봉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내 서비스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기분, 설명하기 힘들네요. 봉사자들이 많이 봉사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부산 용호복지관 ‘TQM’ 선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가르쳐 할지 모르겠어요.”

용호동 지역에 살고 있는 46세의 한 주부가 용호종합복지관에 호소한 어려움이 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준성)이 발 벗고 나섰다.

복지서비스 질 ‘업그레이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9일 오후 4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2층 용호문화센터에서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을 선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TQM은 지역민들의 만족을 높이고 서

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 도구, 기법, 훈련 등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과정을 말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어려움도 달라지며 조직 운영 중에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관리기법이

필요하여 TQM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 조직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더욱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제안에 의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유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전문사회복지’, ‘고객감동’, ‘삶에 희망과 용기를’이란 비전을 안고 지역 주민을 위해 발돋움할 예정이다. (051)628-6737-9

하성미 기자

내 마음속
빛이다

위트와 감성언어 108가지

감성의 숲에서 붓대를 만나다!
위트와 감성, 해학과 풍자로 개념을 풀이하다!

【특징】
아까워서만 다다려졌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눈치잡기, 정서, 걱정, 고민, 노년, 애인, 걱정이다. 그리고 산사 스님들의 증언도 실려 있다. 하루란 책이다.

【특징】
“관심”이라고도 한다. 선에서 중립에서나 조율되는 것이 수확자에게 복사는 일단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화두를 탐구하여 깨달음의 원리를 간파하는 것이다. 화두를 탐구하는 방법은 그 어떤 논리적 분석이나 계층적 고찰을 통하지 않고 오직 ‘관심’을 ‘정신적수용’에 의한 명상에서 한다.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깊게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음에 화두를 던지면 문득 깨닫지 않게 된다.

동승동
전화: 02-709-4099-4, 팩스: 02-709-7785, 홈페이지: www.buddhanews.com

동승동·김영희 지음·신원출판·2006년 12월 15일 발행·정가 9,000원

불교, 교양으로 읽다

초심자를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공부의 감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길라잡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불교의 근본질서를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친절함 교양서!

민족사·최영태 지음·신원출판·536페이지·정가 15,000원

부처님과 보살 이름이야기

【여러 부처님과 보살은 누구이고 어떤 공인가?】
남다른 절에 가서 기도를 하려해도 우리는 정주 석가모니 부처님, 미로자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오백나한, 사천왕, 가섭, 아난, 사리불 등 여러 부처님과 보살 신중, 삼대제자는 누구이고 어떤 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민족사·이완수 지음·신원출판·256페이지·정가 9,000원